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11. 13.(월)	담당부서	아주통상과
담당과장	송요한 과장(044-203-5710)	담 당 자	정경화 사무관(044-203-5714)

한 · 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으로 하노이 방문,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, 기획투자부 장관과 면담 개최

- 한-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, 진출기업 애로사항 지원

□ 11.13(월)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 다낭 일정을 마치고 하노이를 방문하여 쩐 뚜언 아잉(Tran Tuan Anh) 산업무역부 장관과 응우엔 찌 중(Nguyen Chi Dung)) 기획투자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함

○ 동 면담은 11월 11일 열린 한·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성격이며, 양국간 교역·투자, 에너지 인프라, 통상현안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함

□ 또한, 삼성전자 박닌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점검 및 노고를 취하하고, 휴대폰, 가전 등의 베트남 역내 시장상황 및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함. 이어 내일 LG전자 하이퐁공장을 방문 예정임

<산업무역부 장관 면담>

□ 백 장관은 베트남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11월 11일 열린 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고, 양국 정상이 언급한 '2020년 교역규모 1,000억불 달성 목표'를 실현하기 위해 교역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,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

○ 양국의 두 장관은 수교 25년 만에 교역 및 투자분야에서 핵심 파트너로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, 양국 간 교역규모가 올해 600억불 돌파가 예상되고,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1,000억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, 한-베 FTA를 기반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

○ 또한, 베트남이 단순한 제조업 파트너가 아니라, 인구 1억명의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비재, 음식료,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로 투자를 다양화하기로 함

○ 베트남의 무역불균형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, 양국이 소재부품 관련하여 윈-윈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 가기로 하였음

□ 백 장관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규제, 수출관세 등 통상현안에 대한 산업무역부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,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플랜트 수주 지원을 당부하였음

* (통상현안) △미국 월풀사의 부당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요구에 대한 공조, △한국산 비료의 세이프가드 조사, △알루미늄빌레트의 수출관세 부과, △자동차부품 CKD 무관세 부여 등
* (에너지) △11-2 가스광구의 가스판매가격 인상, △롱안2, 꽝찌2 등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사업권 획득,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베트남 동(銅)화에 대한 달러화 태환보증 비율 상향 등 요청

□ 12월중 제8차 한-베 산업공동위, 제2차 한-베 FTA 공동위 개최를 위해 실무자간 협의를 하고, 공동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<기획투자부 장관 면담>

□ 백 장관은 베트남의 투자정책을 총괄하는 기획투자부 장관 면담에서 아세안 국가중 베트남에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응우엔 찌 중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,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,

○ 자동차부품 CKD 관세인하, 한-베 인큐베이터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한국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였음

□ 롱안 2, 꽝찌 2 등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한국기업의 사업권 획득에 대한 지원 및 베트남 동(銅)화 달러화 태환보증 비율 상향을 요청함

□ 아울러, 한국투자기업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인 세금이슈, 이전가격, 자동차 인세티브 부여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고려를 부탁하였음

* 진출기업 애로사항 : △세관, 세무서 등의 법령과 제도 운[illegible]이 城과 [illegible]당자에 따라 해석과 운영이 상이, △수입되는 소재에 대한 [illegible]전가[illegible]서 관련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당한 세액 결정이 필요, 자동차[illegible]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

<진출기업 방문>

□ (삼성전자 박닌공장) 백 장관은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가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하고, 현재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

□ (LG전자 하이퐁공장) 내일 백 장관은 LG전자 하이퐁공장을 방문할 예정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송요한 과장(044-203-5710), 정경화 사무관(044-203-5714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